

[기고] 한국농어촌공사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

✎ 이재기 기자 | ☎ 승인 2025.04.14 11:47

농촌소멸-난개발 등 농촌문제 적극 대응,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 앞장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농촌지역은 도시보다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내 활력이 급감하는 등 농촌 사회 지속 가능성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존립 위기를 맞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통해 농촌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 정책은 농촌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을 재편해 주거·관광·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
진 복합적이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농촌을 재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 정책추진 일환으로 지난 2월 지역 주도의 계획을 통해 농촌소
멸, 난개발 등 농촌문제 적극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련하고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이 있는 전국 139개 지자체는 정주여건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회복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법제화 됐다.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전
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하고,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군 대상으로 농촌협약을 통해 통합지
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다른 지역보다 한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고 있다. 중앙정부 신규정책이 농촌
현장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전국 최초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
역본부를 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지자체 계획수립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 2024년에 신규 농촌정책에 대
한 지역사회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했다.

2025년에는 분야별 사례, 지역사회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민·중간지원조직 등 현장 주체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군 관계자에게는 정책 조율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
해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도내 11개 지자체 중 5개 시군이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농림축
산식품부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높은 참여 비율로 신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의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전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New Ruralis
m을 실현하고 충북이 전국 농어촌의 중심이 되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